4월 2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뉴욕증시 뒷심부족에 막판하락</p>	<p>뉴욕증시가 28일(현지시간) 경기 지표 개선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막판 소폭 밀리며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05포인트(0.1%) 하락한 8,016.9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60포인트(0.33%) 떨어진 1,673.81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5포인트(0.27%) 하락한 855.16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증시는 약세로 출발했고 미국에서 돼지 인플루엔자 환자가 밤사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 부담을 줬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이 대규모 자본조달을 요구받았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악재가 되었음. 그러나 장중 발표된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났고, 주요 지수들은 장중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음. 하지만 장막판 경계성 매물이 점증하면서 뉴욕증시의 반등시도는 무위로 끝났음.</p>
<p>4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밖으로 `큰 폭 반등`</p>	<p>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26.9(수정치)에서 39.2로 큰 폭으로 상승했음. 지수는 지난 2월 25.3을 바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p> <p>특히 4월 지수는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월간으로 12.3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지난 32년간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4번째로 큰 폭임. 4월 지수는 시장의 전망치도 상회했고 블룸버그통신과 마켓워치가 각각 집계한 시장의 전망치는 각각 29.7과 30.5였음.</p>
<p>돼지 인플루엔자 우려 지속..여행주 급락세 진정</p>	<p>돼지 인플루엔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었음. 미국의 돼지 인플루엔자 환자가 64명으로 밤사이 20명이 늘어났고 캘리포니아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특히 미국 환자중 40명이 뉴욕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도 월가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돼지 인플루엔자의 경보수준을 전체 6단계중 4단계까지 올렸음.</p>
<p>中 교통은행, 1Q '깜짝 순익'</p>	<p>중국 교통은행의 1분기 순익이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 전년 동기 78억9,000만위안 순익을 기록했던 교통은행은 올 1분기 79억4,000만위안을 기록. 이번 순익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5억위안을 훨씬 웃도는 수치.</p>

제목	주요 내용
중국은행, 1Q 27.2억弗 순익..전년비 14% 감소	중국은행이 미국 모기지 투자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및 상각 탓에 1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 줄어든 186억위안(27억2,000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78억위안은 상회.
日-中, 차세대 휴대폰 개발 협력 나선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원자바오 일본 총리가 29일 열리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휴대폰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협력에 합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8일 보도. 일본의 휴대폰 서비스는 3G(3세대) 통신 규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G(2세대) 기반으로 운영. 이러한 차이점으로 일본 기업들은 거대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인 핀란드 노키아와 한국 삼성전자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음.
日 주요 철강업체 분기 손실 기록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 가전, 건설 수요가 줄면서 일본 주요 철강업체들이 회계연도 4분기(2009년 1월~3월)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 일본 최대 철강업체 신일본제철은 570억엔(5억9,400만달러), 3위 업체인 스미토모 금속은 221억엔 순손실을 기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